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문단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과거제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세습적 권리는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또한 핵심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 : 과거제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제 때문에 신분, 추천보다 시험성적이 중요해졌다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 & 추천'을 말 그대로 신분과 추천으로 읽으면 안 되겠죠? '신분 & 세습 = 세습'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정보량을 줄여야 해요.

2문단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과거제의 공정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겼네요. 위 문단에서 말한 과거제가 합리적이라는 서술과 같은 말이죠?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습니다. 핵심이 '과거제'에서 '과거제의 영향'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핵심 : 과거제의 영향 (항상 위, 아래의 핵심과 연결해 가며 읽어야 합니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과거제가 일부 제한이 있긴 했다고 **부분동의**를 하고 있군요. 많은 곳에서 배웠었죠? 목적론, 우주론 등.. 어쨌든 그래도 공정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같은 말임을 인지하고 넘어갑시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익명성의 확보 = 공정성'으로 봐야겠죠? 정보량을 계속 줄이세요.

3문단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엔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네요. 당연히 긍정적 측면일 겁니다.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다네요? 공정하니까 공부할 동기가 생겼겠죠. 자꾸 '공정함'이라는 키워드와 묶어 가야 합니다. <과거제의 합리성 = 공정성 = 기회 증가 = 사회적 유동성 증가 = 익명성의 확보> 모두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핵심이 바뀌었습니다.

핵심 :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 (공정성과 연결되겠죠.)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그 결과'라는 것은 위 문장의 교육의 확대, 지식의 보급에 대한 내용이겠죠? 지시어는 항상 살려서 읽으세요.

교육이 확대됐으니 당연히 지식인 집단이 늘어났겠죠?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고전, 유교 경전을 학습하니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공유가 늘어났나 봅니다. **이걸 단순히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정보를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랑 연결지며 읽었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엥? 최종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특권을 부여했네요? 특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글을 바탕으로 한 상식적인 생각은 '시험'을 '통과'해야 관료가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특이한 부분은 당연히 문제에 나오겠죠?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를 '특이'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특권을 받고, 지방 사회에서 활동하니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었겠군요.

4문단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가 좋은 제도였으니 오래 유지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독해이고, 우리가 잡아내야 할 것은 문장에 나오는 '과거제의 합리성 = 공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는 정보로, 또 다른 워딩을 대체하면서 정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왕조가 교체돼도 엘리트층이 연속되었다는 말은 능력있는 관리들이 꾸준히 선발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이러한'이라는 말은 '엘리트층의 연속성'이겠죠? 좋은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뽑히니 관료제가 유지될 수 있었겠죠. 이 문단의 첫 문장부터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제가 기여한 사회적 안정성이죠.** 이 문장들을 모두 다른 정보로 처리하고 있으면 독해력을 더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5문단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아 그렇군요.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과거제가 유럽에 퍼졌답니다. 우주론에서 서구의 우주론이 중국에 전파되어 미쳤던 영향이 떠오르죠? 핵심이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에서 '과거제의 전파'로 바뀌었네요.

핵심 : 과거제의 전파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유럽 계몽사상가들이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읽었냐에 따라서 실력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의 지식 = 과거제> vs <귀족의 세습적 지위 = 세습> 으로 읽어내셨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 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역시, 과거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그런지 과거제를 반영한 제도가 도입됐네요.

(가)를 모두 읽어봤습니다. 과거제의 장점에 대해 서술한 지문이었네요. 절대 어렵지 않았고, 정보량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보가 너무 나열돼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과거제'와 '세습'의 대립을 중점으로, 과거제의 가장 큰 장점인 '공정성'을 중심으로 핵심을 잡고, 재진술을 파악하며 읽어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럼 (나)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

1문단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유형원의 공거제가 핵심인가 봅니다. <능력주의,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라는 말은 당연히 (가)와 연결지어서 <과거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읽혀야 합니다.

핵심 : 공거제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중국에서는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살리자는 개혁론이 등장했다네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세습 = 봉건 = 개혁론>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수식은 ‘≠’, ‘반추위’, ‘좌인의 총체주의’ 지문에서 배웠죠?

그나저나 공거제에 대해 설명하나 했더니 아닌가 봅니다. 핵심은 자주 바뀌어도 됩니다. 그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의식하며 잡아내는 게 중요하죠.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염무라는 인물은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고 = 과거제와 같은 제도를 유지>, <지방관은 검증기간 후 지위를 평생 유지, 세습의 길 = 세습> 하자고 주장했네요.

항상 말했듯이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별개로, 상층에는 과거제를 유지하자고 했으니 예외로 볼 수 있겠네요. 문제로 나온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보니까 핵심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핵심 : 봉건적 제도 (과거제를 보완하기 위한 세습)

핵심은 꼭 한 단어,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 과거제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의 생각만 가능해도 문제 없습니다.

황중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황중희라는 인물은 <관료가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 후 추천 = 세습>하자는 주장을 했네요. ‘벽소’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세습’과 같은 말임은 인지해야 합니다.

2문단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등장 배경이 존재하나 봅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과거제의 개선 의무가 있었군요. 물론 이는 위에서 서술되었던 ‘세습, 봉건’ 등의 부활일 것이구요.

핵심 : 개혁론(세습, 봉건 등)의 등장 배경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시험 방식에 부작용이 있어서 과거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나 봅니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낳았다.

과거제처럼 경쟁하다 보니 <깊이 있는 학습X = 형식적 학습 = 인재들의 재능 낭비>가 생겼군요. 우리는 이 모두를 같은 말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두 <과거제의 문제점>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보량을 줄이세요.

선지를 읽고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거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는 선지라면 이 부분으로 돌아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 과거제의 문제점 (핵심을 항상 위, 아래랑 엮으라 했죠? 이 핵심은 위에 나오는 핵심인 ‘개혁론의 등장 배경’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인성, 실무 능력 평가X = 과거제의 문제점>으로 읽어야죠? <익명성에 대한 회의 = 과거제에 대한 회의>로 읽어야 하구요.

3문단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관리한테까지 연결되었군요. 핵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핵심 : 과거제로 임용된 관리에 대한 비판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과거제의 특징이었던 능력주의적 태도가 관리의 평가에도 적용이 되었답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장이 매우 길지만, 우리는 **능력주의**라는 키워드로 이 문장을 읽어내야 합니다. 위 문장에서 분명히 <능력주의적 태도가 관리한테도 적용되었다.>고 나왔으니 말이죠. 분명히 그와 관련된 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습X, 성과를 내야하는 관리들은 성과를 위해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 중시했네요. 말 그대로 **능력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결과만 중시하게 된 것이죠. **능력주의**가 관리의 평가에도 적용이 되면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개인적 동기 = 능력주의적 평가에서의 좋은 평가에 대한 욕구 = 과거제> vs <공공성 = 세습 = 봉건 = 개혁안> 으로 읽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 개인적 동기 = 과거제>이죠?? 그냥 읽문장과 같은 말입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위에서 했던 말들과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거제 =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 출세 지향적 = 능력주의>, <세습 엘리트 =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 =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이라는 것이죠.

절대 정보량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4문단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역시 문장이 길지만, 하나하나 재진술을 잡아가면서 읽어봅시다.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 봉건, 세습 제도>이라는 말이겠군요. <그 외의 정치 체제 = 과거제 외의 정치체제>일 것이구요.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 = 공공성 = 세습 = 봉건 = 개혁안>은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계속 그 말밖에 안했는걸요?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봉건적 요소 = 세습>의 회복이 단순히 복고적 이유에서만은 아니었다네요.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 = 과거제의 부작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 = 봉건 제도 = 세습>를 활용해서 보완하고 싶었다는 의미이군요.

절대 정보량이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보가 나열된 지문도 아니구요.

재진술과 비교/대조를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고, 불친절한 서술도 없기에 아직 독해력이 부족하시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문으로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6월 총평에서 올해 포인트는

1. 비교 / 대조
2. 세밀한 선지 구성
3. 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례증감 (문제 포인트)
4. 불친절한 서술 (이건 2020 학년도부터 항상 있어왔죠?)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중 (가) vs (나)를 통해 1번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와 같은 유형은 9평은 물론 수능에도 출제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렵게 나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까다로운 비교지점을 통해 지문 이든 문제든 어렵게 낼 수 있을 것 같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연습해두시길 바랍니다.